

국외출장보고서 : 영국 러프버러, 런던

1. 국외출장목적

- 영국 Joseph Rowntree Foundation과 Loughborough 대학 연구진의 최저소득기준 (MIS) 측정 방식에 관해 책임 연구자인 Donald Hirsch 교수 등 연구진 방문 및 자문
- 영국 Loughborough 대학 연구진과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한 자문 및 토론
- 영국의 새로운 빈곤선 계측 방안을 제시한 Legatum Institute 방문 및 책임 연구진과 자문 및 토론
- 영국 Brexit의 진행 과정과 Brexit이 영국 사회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문가인 LSE의 Kitty Stewart 교수를 만나 자문

2. 국외 출장 개요

- 출장자 : 김기태(부연구위원), 정세정(부연구위원)
- 장소 : 영국 러프버러, 런던
- 일정 : 2019년 8월 5일(월) ~ 2019년 8월 10일(토)

○ 세부일정

날짜	세부일정
8.5(월)	한국 시간 오후 인천공항 출발
18:00-21:30	런던 히드로 공항 → 러프버리(Loughborough) : 약2시간 30분 소요
8.6(화)	
오후	○ Loughborough University, Centre for Research in Social Policy(CRSP) - 인터뷰: Prof. Donald Hirsh, Dr. Nicola Lomax, Dr. Lisa Jones 외 Director, Centre for Research in Social Policy - 주제: 빈곤선 측정 방법 및 빈곤 정책 관련 세미나 % 손동영(요크대 박사과정) 발표 및 토론
8.7(수)	
오후	○ Loughborough University, Centre for Research in Social Policy(CRSP) - 인터뷰: Dr. Claire Shepherd, Dr. Matt Padley 외 Director, Centre for Research in Social Policy - 주제: 노인빈곤 현황과 측정방법 관련 논의 % 유선우(옥스포드대 박사과정) 발표 및 토론
8.8(목)	
오전	○ LSE - 인터뷰: Dr. Kitty Stewart, 이승영(공동연구진) - 주제: 브렉시트 이후 영국 빈곤 정책과 사회정책 변화 전망
8.9(금)	
오전	○ Legatum Institute - 인터뷰: Emily Harris, Matthew Oakley 외, 이승영(공동연구진) - 주제: 대안적 빈곤 측정 % 이승영 (옥스포드대 박사) 참여 및 토론
오후	히드로 국제공항으로 이동
8.10(토)	오후 인천공항 도착

3. 국외출장 주요 개요

가. 영국 MIS의 측정

□ 러프버러 대학 CRSP팀의 MIS의 측정은 질적인 접근 방법을 채택하고 있음. 또한 이를 위해 사회참여(social participation)의 개념을 핵심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이때 사회 참여의 정의는 연구팀에 의해 조작화되지 않으며, 그룹 인터뷰에 참여하는 참여자로부터 도출됨

— 사회참여는 국가(예: 멕시코의 사회참여와 영국의 사회참여)에 따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며, 조작화 할 경우, 유연한 적용이 어렵기 때문임

○ CRSP의 MIS는 가장 저렴한 것 즉, 단순히 생존이 아닌 존엄한 삶을 지향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존엄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 선택할 기회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봄. 최저와 욕구 중 욕구에 보다 초점을 둔다고 볼 수 있음

— 최저(minimum); 가장 싼 것 (선택할 수 없음)

— 욕구(need); 한 사회 구성원으로써 선택할 수 있는 기회

A minimum standard of living in the UK today includes, but is more than just food, clothes and shelter. It is about having what you need in order to have the opportunities and choices necessary to participate in society.

○ 이러한 접근은 단순히 가장 싼 것이 수요와 공급을 대변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고 보는데서 출발함. 예를 들어, 가장 싼 냉장고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윗 단계의 냉장고를 구입하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음

○ MIS는 빈곤선과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MIS는 최저기준이 아닌 인간다운 삶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써, 두 개념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사람들이 모두 잘 살게 된다면 이 두 선이 가까워질 수는 있을 것임. 즉, MIS는 상대적 빈곤선에 따라 조정되는 개념은 아님. 예를 들어, 2009년, 2010년 중위소득은 떨어졌고, 2014, 2015년에는 올랐음. 그러나, MIS는 이 시기 동안 큰 차이가 없었음

□ MIS 도출을 위한 그룹 인터뷰의 구성 및 내용

○ 그룹 인터뷰의 질문은 존엄한 삶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며, 왜 필요한 지, 이것이

충족됨으로써 삶이 어떻게 향상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룸

- 그룹 인터뷰를 수행하는 인력의 훈련은 숙련자의 관찰 (일종의 실습훈련과 유사)로부터 이루어짐
- 한 그룹은 8~10명으로 구성되며, 총 19개의 그룹이 있음

□ 질적 접근의 대표성 확보 문제

- 그룹 인터뷰 참여자 모집은 관련 전문 기관으로부터 이루어짐. 대표성의 확보는 일정 범위(range)를 제공하여 다양한 연령과 결혼여부, 주택소유, 직업 유무, 교육 성취정도, 자녀 유무 등을 고려하게 됨
-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되어 측정된 지금까지의 MIS는 매해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왔음에 따라 샘플 구성원의 차이로 인한 noise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지는 않음. 또한, MIS의 도출은 단지 하나의 집단이 아닌 하나의 집단으로부터 도출된 정도가 다른 그룹에서도 도출되는지, 합의가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임. 예를 들어, 몇 년 전 아이를 키우는데 꼭 필요한 것이 차라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는 한 그룹이 아닌 다른 그룹들로부터도 동의가 이루어진 내용임
- 그러나, 다른 그룹들로부터의 동의는 양적 수치(즉, 50%이상의 동의)를 바탕으로 도출되지는 않음. 한 쪽의 의견이 다른 쪽의 의견보다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는 MIS에 포함되게 됨

□ 영국 빈곤정책의 설계에 있어서의 빈곤지표의 활용

- 예전에는 중위소득 60%기준을 활용하였으나 현 연립정부는 이 지표가 소득빈곤에만 관심을 둔다고 지적. 즉, 소득 빈곤은 빈곤의 결과이기 때문에 빈곤의 원인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편의에 따라 다양한 지표(예: 중독 등)를 활용하고 있음
- 더하여, 현재 건축재정 하에서는 빈곤을 논의하기 쉽지 않음

□ 본 센터의 MIS를 외국에 적용할 때의 고려점

-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시발점이 무엇인가에 있음
 - 싱가포르의 고령자에 대한 보호, 멕시코는 사회계층 이동(social mobility)과 자녀가 있는 그룹에 대한 targeting, 태국은 아동 수당의 도입여부와 관련된 논의였음. 또한, 남아공 지역에 적용할 때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적 특성을 반영

한 바 있음

- 외국에의 적용 시, 수퍼바이저, 참여는 직접적으로는 어려움.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경우 조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음. 그 이유 중 하나는 언어 장벽, 다른 하나는 사회 외부자가 그 사회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지, 도움이 되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 연구의 지속성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임
- 다만, 멕시코의 경우에는 연구진에 멕시코에서 온 사람이 있어서 참여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음
- 즉, skype, email등으로 과정에 대해 이야기 하고, 그들의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음 (몇개의 그룹이 필요한지 등)
- 설계단계에서 기본 가이드라인에 대한 조언, 비디오 등을 활용하여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제공하기도 하며, 단계별 advice를 제공함. 또한, 민감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서도 조언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처음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참여할 수 있음

□ MIS와 관련한 예산

- 기본적으로 조셉 라운트리 재단(JRF)으로부터 받고 있으며, 다른 리서치 프로젝트로 부터로도 충족되고 있음. 총 15만 파운드가 소요되지만 지역, 대상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음

□ MIS의 함의

- MIS는 정부의 빈곤관련 정책 수립에 현 상황의 반영이라는 점에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음. 이를테면, 교통비를 올렸을 때 직접적으로 국민들에게 영향이 가게 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섬세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실제로, 재판을 할 때 재판비용에 대한 지불능력을 판별하는 것으로 쓰인 사례가 있음. 또한,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었지만 정치적으로는 민감한 문제임

나. 노인 빈곤, MIS의 측정

- 노인의 경우, 다른 형태의 가구(예: 한부모 가정)와 달리, MIS가 상향조정되고 있음.

이는 첫째, 노인이 생각하는 사회참여, 존엄의 수준이 올라가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둘째, 사회의 변화를 반영함

○ 그러나 영국의 특성상, 무엇 때문이라 특정하기는 어려움. 아마도, 연금 수급자의 기대상승이 가장 큰 요인일 것으로 판단됨. 예를 들어, 13년 전에는 노인들이 핸드폰, 인터넷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norm이 없었으나 이제는 삶에 있어 핸드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리고 교통수단의 선택(예: 버스 vs. 택시) 문제의 경우,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하게 됨

□ 영국 노인의 소득비중 가운데 기업의 퇴직연금 수준이 높은 이유는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임금과 연동된 금액이 있는데, 영국의 경우 일정한 금액만 주다보니 퇴직연금에 더 의지를 많이 하는 것으로 추정됨

□ 영국의 경우 노인빈곤에서 주거비용만 특히 고려되는 것은 집의 유형에 따라 어떤 집은 가스, 어떤 집은 전기를 연료로 사용 하는 집이 있어서 연료비의 반영이 어렵고, 교육비는 국가가 대기 때문에 편차가 없을 것이라 가정하고 있음. 즉,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 하우징이라 보는 것임.

○ 그러나 영국 노인의 주거비 반영은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함. 렌트, 모기지로 인한 비용만 포함하는 것이지 유지 비용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 이를테면, 어느 가정의 경우, 렌트비 보다 유지비가 더 많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음

○ 노인의 경우, 자녀가 출가 후 큰 집이 필요 없는데. 즉,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작음. 물론, 국가가 작은 데로 이사하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감정적 측면으로도 이사를 가기가 어렵고, 영국 주택 수요공급측면에서도 형편에 맞는 집으로 이사가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 중장년, 노인 일자리

○ 국가적으로 특정 산업, 50세 이상에 한한 프로그램은 있으나 얼마나 이용했을지는 알 수 없음. 사회 초년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반은 사회초년생, 반은 중장년으로 구성되기도 함

○ 낮은 기술을 가진 경우, 이후에도 직업을 가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관련하여 연금 시스템을 도입할 당시에는 지금의 수명을 기대하지 않았음. 따라서 은퇴나이를 늦춰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함

- 은퇴 연령과 재정 절약에 관한 보고서로는 하나는 연금 수령 나이를 올리는 것 다른 하나는 연금을 임금과 연동시키는

□ 연구소의 향후 계획

- 욕구의 상위 단계로써 안락한 삶(moderate comfortable)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는 은퇴를 앞둔 50세의 사람들에게 향후 무엇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를 제시할 수 있음. 영국의 경우,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시스템에서 개인이 개인의 삶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음에 따라 이를 위한 준비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데 함의가 있을 수 있음

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 빈곤 정책과 사회정책 변화 전망

□ Brexit의 영향

- 1) 경제적 차원에서 삶의 기준(living standard)과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2) 이민의 감소(Reduction of migration)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특히, 헬스와 소셜케어 영역에서 일자리를 채울 인력이 더욱 부족해 질 것임. 브렉시트 이전부터도 이 영역에 대한 인력부족은 이민자들의 참여로 보충되고 있었는데, 브렉시트가 이루어지면 더욱 큰 여파가 있을 것임
 - 이에 대한 해결은 이민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가능. 그러나 정부는 고숙련 인력을 원하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social care, health care영역이라는데 문제가 있음. 따라서 이민을 어떤 식으로 장려할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임. 의사나 간호사와 같은 고숙련 노동자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더 나은 페이도 지불해야 하는 문제도 있음
 - 인력 수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헬스, 소셜케어 영역에서 일하게끔 해야 하는데 이것 또한 돈이 많이 드는 일임.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폴란드 등 동유럽에서 오는 인력에 영국이 상당부분 의존(free riding)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돈이 들게 될 것으로 예상됨. 참고로, 영국의 젊은이들은 social care, health 영역에서 일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으며, 차라리 카페테리아 등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음

- 3) 고용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지금까지는 근로자 권리와 관련하여 EU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었고, 영국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었는데 협상에 따라서 예전처럼 보호가 약화되는 방식으로 돌아갈 위험, 어려움이 있음

□ Brexit와 고용동향

- 생활임금(living wage) 향상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논의
 - social care영역으로 들어왔다가 다른 영역으로 빠질 수 있다고 봄. 이민정책 설계에 있어 소셜케어 인력 유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실제로 1999년 national living wage 도입될 때, 고용저하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있기도 하였음. 현실적으로는 역시 돈이 문제가 될 수 있음. social care에서 50%가 인력비로 지출되기 때문임
- 소셜케어 영역의 공공화가 이 영역에서의 노동시장을 또다시 이분화(젊고 유능한 인력 vs.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인력)할 가능성에 대한 논의
 - 영국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있음. 그러나 이는 곧 재정의 문제와 직결됨에 따라 여전히 혼합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정당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정당간 합의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이것이 인기있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임(세금인상, 재원확충과 관련하여). 따라서 현재는 개인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재산을 다 처분해야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음. 즉, 관련하여 뚜렷한 해결책은 찾지 못하고 있음
 - Brexit의 간접적 영향의 예로써, 2017년 테레사 메이이 임각했을 때, 자신의 부(wealth)를 줄여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정책을 발표했으나 노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새로운 제안을 가져오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향후 모든 사안들이 브렉시트에 초점을 두게 됨에 따라 아무런 대책이 없게 되었음
- 이주민들이 대거 빠지게 되면 공급이 줄어 돌봄 가격이 올라가면, 오히려 저임 노동이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음.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재정임. 경제는 안 좋아지고 있고. 이에 tax인상 등과 관련된 이슈가 있음. 저임 노동자(저기술은 아님)들이 높은 임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 또한 돈이 드는 일이기 때문임. 브렉시트로 인해 소셜케어, NHS, 교육 등에 드는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어려움이 있음

□ Brexit와 아동빈곤

- 라운트리 재단이 관련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음. 인플레이션, 급여동결로 생활수준을 저하시킴으로써 상대적 빈곤은 심각해지고 있고, 아동빈곤 등에 대한 영향은 이미 일어나고 있음. 관련 급여는 2016년 4월 급여 동결로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고 있지 않은 상태임. 실질 금액에 있어서는 지출이 줄어들면서 아동이 있는 복지급여가 줄어들고 있음. 서민들이 느끼고 있는 부분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푸드 뱅크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음. 다른 한편, 불평등에 대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고임금 일자리들이 사라지게 됨으로써 불평등이 완화될 것이라는 결과가 발표된 바도 있음

□ Brexit의 여파에 대한 사회정책 방향

- 브렉시트가 결정되었을 때 테레사 메이는 injustice, inequality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정책에서는 제한적인 산업 정책, 소규모 정책만이 제공되었음. 이를 해석해보면 첫째, 테레사 메이가 실질적으로는 의사가 없었을 가능성. 둘째, 브렉시트가 모든 것을 장악했기 때문에 관련한 사회정책을 수립할 여력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었음. 관련하여, 2018년 social mobility commission의 전원 사임 사례는 정부가 관련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음
- 영국의 복지정책은 노동당 집권 이후 확대되었으나 2013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함. 그러나 축소의 체감에는 시간이 걸리게 되고, 또 이러한 체감의 지연이 브렉시트의 찬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추정
- 급여삭감 등에 대한 분노가 브렉시트로 발현되게 된 이유는 2017년 선거 당시 보수당의 메시지와도 관련이 있었음. 불평등의 증가를 노동당의 책임으로 귀결하였고, 이는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하였음. 이후 연립정부는 세금을 납부하는 소득 배이스를 증가시켰음(3,000파운드 -> 11,000파운드).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기준선의 상향은 급여 동결, 삭감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임. 즉, 면세가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까지 혜택을 받게 된 것임
- 보수당의 이주민에 대한 비난, 그리고 그에 대한 사람들의 수용은, 어떤 증거도 사실 이주민이 복지국가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없는데도 의료서비스의 웨이팅 리스트가 길어지고, 건축재정, 우선순위 등에서 밀리면서 느끼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미디어의 영향) 생각됨. 그러나 이민과 브렉시트를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음. 왜냐하면 브렉시트가 그것을 이미 다루고 있다고 보기 때문임. 사회복지의 자산조사에 기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민자들도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이주민에 대한 반감정과 민주주의의 발달 측면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임

- 브렉시트 결정 후, 영국은 투자하는 사람들(예: 미국)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법인세 인하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브렉시트를 우려하나 소수의 경제학자들은 노동, 환경 규제 완화를 통해 괜찮을 것이라 보고 있기도 함. 그러나 브렉시트로 인한 부정적인 상황과 영향에 대한 실마리는 매우 알기 어렵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임. 시간이 지나면 젊은 층의 영향으로 다시 EU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함. 45세 미만의 사람들은 EU에 남는 것을 원했었기 때문임. 그러나 얼마나 생각을 바꿀지는 의문임. 민주주의가 때문에 브렉시트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도 강하기 때문임. 교육인지, 연령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이 둘 다 향후 중요할 것으로 보임
- 보수당이 지방의회를 차지하고 있는 바쓰 지역에서는 버진이라는 거대 미디어 회사가 nhs에 참여하기 시작하였으며, NHS가 민영화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우려가 있음. 또, 향후 미국과의 무역협정과 관련하여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EU가 NHS 시스템 유지에 큰 영향을 미쳤었는데, 브렉시트로 인해 NHS 시스템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걱정되는 상황으로 보임
- Stewart 교수는 미국과의 무역협정과 관련하여,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됨. EU가 NHS 시스템 유지에 큰 영향을 미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봄

라. 대안적 빈곤 측정 (레가툼 인스티튜트)

☐ Legatum Institue 소개

- 본 기관은 노동연금부 장관 출신인 필리파 스트라우드가 3년전 설립

☐ 대안적 빈곤선의 측정 배경과 정책 활용

- 영국에서 빈곤선의 측정이 매우 논쟁이었음.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없었기 때문임. 예를 들어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채택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 정부는 현재, 본 기관의 보고서를 근거로 실험하고 있으며, 지난 6월 실험적으로 우리의 기준을 따르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음

☐ JRF의 최소소득기준(MIS)에 대한 의견과 본 연구소의 빈곤 측정 방법 채택의 배경

- 본 연구소의 연구에는 JRF의 디렉터도 참여하였음 JRF의 기준을 우리가 따르지 않은 이유는 첫째, JRF의 MIS는 사실상 빈곤선 이상의 더 위에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며, 두 번째 이유는 MIS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켓 바스켓 안에 무엇이 들어갈지에 대해서 평가해야 하는데, 그 방식이 매우 논쟁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임
- JRF와의 차이점과 관련하여 본 연구소는 주관성 극복을 위해 백지에서 출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그 출발점은 기준중위소득 60%였음. 또한 여기에 자산과 비용을 고려하고자 하였음

□ 빈곤선 고려시, 장애, 보육, 주거 선정의 근거

- 고려해야 하는 요인에 대한 오랜 논의가 있었으며, 이를 위해 가족성원, 가족의 욕구를 고려하였음. 장애, 보육, 주거 등의 변수는 균등화가 어렵고 지역간 편차도 크게 나타남. 그리고 가구의 부담에서 특성에 따른 분산도 크게 나타남. 이를테면, 한국에서는 교육과 의료가 주된 고려대상이 될 수 있지만, 영국에서는 교육과 의료가 무료임. 따라서 두가지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할 수 있음. 또한 이 세가지의 비용은 가족자원조사(Family Resources Survey)에 근거하여 판별함
- 다만, 노인의 문제는 소셜케어의 문제로 앞으로 포함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현재는 가족자원조사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은 포함하기 어렵기 때문임

□ Legatum 방식에 대한 논의

- 관련 질문: 가처분소득에서 장애나 보육 등의 비용을 뺀 net income을 고려하는 방식에 대하여, 문제는 가처분소득에 공적이전이 고려되는데, 공적이전에는 이미 Child benefit이나 아동 대상 보육 서비스, disability allowance가 반영되어 있음. 따라서, 장애 및 보육 관련 비용은 이미 해당 benefit에 반영된 것이 아닌지?
- Legatum의 응답: 장애를 예로 들면, disability allowance는 공적이전소득으로 고려됨. 그렇지만, 장애의 유형은 매우 다양함. disability allowance가 포괄하지 못하는 장애에 따른 비용까지 반영하고자 함. 다만, 현재는 disability allowance 액수에 근거해서 파악하고 있음. 현재는 장애 수당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비용을 포괄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더 정교화한 데이터가 정부에서 나온다면 그걸 기준으로 장애가구의 실질적인 지출 수요를 파악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 응답: 아동은 더 복잡함. 현물과 현금 등 보다 복잡하게 제공됨. 문항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해봐야겠지만 현재는 급여 지출 항목을 보육비 전체 지출에서 빼고 net cost를 보는 것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또한 가족자원조사는 교통, 난방비는 조사되지 않음. 냉난방비는 집의 크기와 상관된 부분도 있음. 미국에서 과거 교통비를 고려했음. 향후에 고려할 생각을 하고 있음
- 본 연구소는 급여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책적인 견인을 하고자 함. 급여 개선뿐만 아니라, 기술개발이나 다른 정책을 만드는 것도 목표로 두고 있음

☐ Sharing Unit에 대한 논의

- 본 연구소는 Household 개념을 쓰지 않음. (영국에서는 Household 개념이 집 입구의 공유하느냐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 근거임). 흔히, SU 여부를 판단할 때, 자원을 공유하느냐를 보는데, 사람들이 동거를 하거나 시부모와 산다든지, 연관된 사람들이 자원을 공유할 때 SU라고 봄. 이를테면, 한 집에 대학생이 4명 산다면, 한집에 4개의 Sharing 유닛이 있다고 봄. 이러한 기준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고 보이는데, 예를 들어 남아공의 경우, 가족 성원이 1주일에 4회 이상 식사를 함께 하면 한 가구로 봄

☐ Legatum Institute와 연구를 수행하는 Social Metric Commission의 관계

- 법적으로 커미션은 레가툼에 속하지만, 결정은 커미션이 하고, 레가툼이 집행을 하게 됨. 재정과 예산집행은 레가툼이 담당. 커미션에 참가하는 멤버들의 빈곤 개념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빈곤 측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동의는 있음

☐ 영국정부의 빈곤 정책 수립의 근거

- 어떤 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음. 노동당이 집권하면 구조적인 문제, 소득보장에 집중하고 보수당은 고용, 탈빈곤에 집중함. 또한, 이혼, 지역범죄 등을 다룸.

☐ 해당 보고서를 위해서 일하는 연구자의 수 및 향후의 계획

- 상근 연구자 3명. 파트타임 연구자 1~2명이 있음. 또 Social Metrics Commission에 참여하는 멤버들이 있음. 이들은 매달 한번 4시간씩 회의에 참여
- 균등화나 장애에 따른 추가 비용을 연구하고 있음